

〈龍飛御天歌〉의 註解文 一考*

정무룡**

|| 차례 ||

1. 문제제기
2. 주해문의 종류와 특징
 - 1) 사화
 - 2) 주석문
 - 3) 章次註
3. 주해문의 역할
 - 1) 『용비어천가』 진술의 사전적 이해
 - 2) 시적 진술의 맥락화 補整
 - 3)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태조·태종 치적 선양
 - 4) 사적 사실의 홍보와 내면화 촉진
4. 결론

【국문초록】

그 분량이나 비중에 견주어 연구가 아주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용비어천가』의 주해문이다. 졸고가 독자 제현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연구 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지시키고 신생 왕조의 항구성을 도모하고자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창작했으나 결함을 감지한 후 주해문을 제작하게 되었다. 주해문은 성격이나 구실로 볼 때 사화, 주석, 章次註로 구분된다. 4조 및 태조·태종 잠저시의 행적들 중 천명과 천복, 이적, 비상한 면모나 역량 등의 요소가 내포된 전승물들을 世系 순서로 일차 정리하고 각 인물들의 삽화와 대응되는 중국 쪽 인물들의 그것을 선취해서 짠 것이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경성대 학술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수행되었음.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회다. 삼재사상을 연상시키는 전체 123장을 미리 확정하고 그것을 충당하고자 각 삽화에서 노래 모티브를 적출하여 <용비어천가>를 완결했으리라 판단된다. 문자들의 음훈 설명을 시작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문물 현상에 이르기까지 주석을 단행했는데 15C 동아시아의 백과사전에 값한다고 평가할 정도다. 장차주는 <용가> 125장의 체재를 언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용비어천가』의 주해문은 원시와 역시는 물론 사회들의 진술까지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초학자들이 읽고 의아심을 품을 만한 사항이면 영역을 불문하고 주해를 달아 독자층의 저변을 넓혔다. 각 장은 자체적으로 생략과 비약이 심해 맥락화가 어려울 뿐더러 장들 간에도 예의 현상이 농후한데 주해가 들어 해결해 준다. 조선의 건국과 태종의 즉위는 통치이념으로 표방한 성리학과는 충돌한다. 주해문은 그것을 소망스런 국면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6조의 사적을 각인시키는데 일조한다.

주제어 : 주석, 사회, 백과사전, 체제, 맥락, 합당, 각인

1. 問題提起

이 연구는 <용가>¹⁾의 주해문을 범주화하고 그 특징을 구명한 후 그것을 발판으로 주해문의 역할을 탐구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이다.

‘주해’라는 용어는 이미 1447년(세종 29)에 <용가> 주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최항²⁾이 사용했으며 그 개념도 ① ‘인용한 옛 일의 본말을 간략히 밝히고, ② 다시 글자의 음과 뜻을 달아 보기 쉽게 하다’라고 개략적으로 규정했다.³⁾ ①이 ‘解’를, ②가 ‘註’를 함의한다. 한 연구는 전자를

1) ‘용비어천가’라면 국문 위주의 시가를 지칭함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것의 譯詩(왕조실록에서는 ‘龍飛詩’라 명명했다)와 주해문을 수록한 10권 5책의 문헌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용가>, 후자를 『용가』로 구분하여 약칭할 것이다.

2) 전인초, 『최항과 『용비어천가』』, 『어문연구』32-4, 어문연구회, 2004 겨울, 454~8면.

3) 崔恒, <龍飛御天歌跋>. 歲乙丑, 議政府右贊成臣權踰…等 製爲歌詩一百二十五

‘解說’, 후자를 註釋(音)으로 호명했는데⁴⁾ 최항이 구사한 ‘주해’의 본의를 잘 살린 듯하나 ①은 기실 역사적 삽화이므로 이 글에서는 ‘史話’라 부르고자 한다.

『용가』는 서두의 정인지 <序>와 안지 <箋>, 그리고 말미의 최항 <跋>을 제외하면 각권이 字體의 형태와 크기, 상단선에서의 간격, 글의 성격과 형식 등을 기준해서 13부분으로 나뉜다. 그들을 순서대로 벌여 보면 ① 해서체의 卷次 표지로 가장 크며 상단선에 붙었다, ② 해례본체(단 한자는 해서체)의 정음시로 상단선에 붙이되 자체는 ①보다 작다, ③ 가장 작은 해서체로 ②가 끝나자마자 割註를 붙이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선에 붙는다, ④ 국문시의 번역 한시가 ②와 같은 위상으로 설정되었다, ⑤ 할주가 ④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 위상은 ③과 같다, ⑥ 상단선에서 2자 간격을 두고 중국 쪽, 우리 쪽 사화가 차례로 놓인다. 사화와 그에 딸린 할주는 한결같이 이 모습이다, ⑦ 할주가 ⑥이 끝나자 필요한 경우에 붙는다, ⑧ 한 장에 사화가 둘 이상이면 ○로 구분한다, ⑨ 특정인의 史讚이나 평전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⑩ 할주가 여기에도 붙는다, ⑪ 상단선에서 3자 간격을 두고 章次가 붙는데 자체는 ④와 동일하다, ⑫ 할주가 여기에도 들었으되 上限字는 ⑪과 같다, ⑬ 좌측 외곽선에 붙여 ①과 같은 위상의 권차가 또 붙는다, 와 같다. 매 장의 순서는 통일적이나 할주의 경우는 출입이 심하다.

章以進, 皆據事撰詞, 撫古擬今, 反覆敷陳, 而終之以規戒之義焉. 我殿下覽而嘉之, 賜名曰龍飛御天歌, 惟慮所述事蹟, 雖載在史編, 而人難編閱. 遂命臣及守集賢殿校理臣朴彭年…等, 就加註解. 於是, 粗敘其用事之本末, 復爲音訓, 以便觀覽, 共一十卷. 『龍歌全』, 271면. 이하 대제각에서 영인한 『龍飛御天歌全』에서 인례할 경우에는 이 방식에 준한다. 번역은 이윤석, 『완역용비어천가』上·中·下(효대한국전통문화연구소, 92~4)를 많이 참조할 것이다.

4) 송기중,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북방민족어명」, 『진단학보』69, 진단학회, 1990, 105~9면.

이들 중 ①·⑪·⑬은 단순히 진행의 표지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와는 소원하다. ⑥은 사회이고 ③·⑤·⑦·⑩·⑫는 주석이므로 둘을 주해로 간주함에 이르는 없을 터이다. 문제는 ②와 ④ 중 무엇이 본문이며 주해이냐에 있다. 몇 논자는⁵⁾ 한시를 먼저 창작하고 국문시는 그 번역문이라 했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한시가 본문이요 국문시가 주해의 처지로 떨어진다. 그러나 안지가 <箋>에서 언명한 구절, ‘노래는 국어를 사용하였으며 거기에 시를 이어 국어를 번역했습니다⁶⁾를 숙고하면 부인하게 된다. 이 발언은 국문시→번역시의 순서가 확고함을 천명했다. 거기다 첫째, 국문시를 창안한 서체로 써서 앞세웠고 둘째, ‘살아생전에는 향악을 듣다가 죽으면 아악을 아뢰니 어찌하겠느냐?’⁷⁾라는, 자주성을 풍기는 세종의 발언, 셋째, 사회를 통해 부각시킨 강한 주체성⁸⁾ 등을 추가하면 안지의 저 발언은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런 연유로 본고에서는 국문시를 본문으로, 한역시를 주해로 볼 것이다. 따라서 주해문의 범위는 ③·④·⑤·⑥·⑦·⑩·⑫의 7항목에 걸친다.⁹⁾

5) 강신항, 『용비어천가의 편찬 경위에 대하여』, 『문리학보』6-1, 서울대 문리대, 1958, 150면. 조홍욱, 『용비어천가의 창작 경위에 대한 연구』, 『어문학논집』20,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1, 143~162면. 정구복,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역사의식』, 『한국사학사학보』1, 2000, 25면.

6) 『용가전』, 7면. 凡諸事跡之奇偉, 搜撫無遺. 與夫王業之艱難, 敷陳悉備, 訂諸古事. 歌用國言, 仍繫之詩, 以解其語.

7) 『세종실록』 권 49, 12년 9월 11일(己酉). 雅樂, 本非我國之聲, 實中國之音也. 中國之人, 平日聞之熟矣, 奏之祭祀宜矣, 我國之人, 則生而聞鄉樂, 沒而奏雅樂, 何如?.

8) 수의 양제는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을지문덕에게 무참히 패배했고(제17장), 당 태종 역시 대군으로 고구려를 압박했지만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한 채 퇴각했다(제41장). 물론 『자치통감』에 등재된 기사이므로 중국 쪽에서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치욕적인 사건으로 덮어두고 싶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것을 『용가』에서 전경화시켰으니 민족의 자긍심 내지 주체성의 고취로 풀어야 할 것이다.

9) 비록 국문시→한역시의 수순을 밟았다고 진단했으나 둘 사이의 시차는 크지 않을 터인즉 ‘가시 총 125장을 찬정, 삼가 기사하고 장정하여(所撰歌詩 總一百二十五章, 謹善寫裝潢, 『용가전』, 7면)라고 하여 ‘歌詩’를 나란히 쓴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권제·안지·정인지는 <용가>를 제작하여 1445년(세종 27) 4월 5일에 세종께 봉헌한다.¹⁰⁾ 수찬한 가시 총 125장을 삼가 고쳐 쓰서 장정하니 10권이라고 했다. 세종은 즉각 판각해서 보급하라 명했다고 하나 실제로 인각되었는지는 미궁이다. 지금까지 이때 것의 판본으로 볼 수 있는 문서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용가』제작의 경위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 답답하다. 하지만 『태조실록』의 열람을 시도했으나 변계량의 반대로 무산된 채¹¹⁾ 사고에 봉안되자 4조의 탄생지, 거처 및 그 자손들에 대한 정보를 탐지해 보고하라고 함길도 감사 李叔時에게 傳旨를 내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가 1437년(세종 19) 7월에 완성되어 올려지는데¹²⁾ <용가> 제작의 출발선을 여기에 두기도 한다.¹³⁾ 대략 8년간이 소요된 큰 사업이었다. 제작에 따른 어려움, 진지함, 혹은 시행착오의 반복 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완성을 본 <용가>에서 결함을 발견한다. 세종이 7개월 뒤 유익손 등에게 일렀던 내용¹⁴⁾이 이 점을 시사한다. 곧 4언체의

<용비어천가>와 더불어 <용비시>의 지시대상도 문제다. 1445년(세종 27, 乙丑)에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가시 125장을 지어 제진하자 세종이 <용비어천가>라고 작명했다 하니(앞 주 3 참조) 저 호칭에는 실상 국문시외 그 번역시도 포함되었다고 하겠다. 곧 국문시+한시=용비어천가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용비시>는 번역시만을 지칭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 10) 『용가전』, 4면. 只撮潛邸時德行事業, 推本列聖肇基之遠, 指陳實德, 反復詠嘆, 以著王業之艱難. 仍譯其歌, 以作解詩, 庶繼雅頌之遺音, 被之管絃, 傳示罔極, 此臣等之亟願也. 正統十年乙丑夏四月日. 『세종실록』 권108, 議政府右贊成權踞, 右參贊鄭麟趾, 工曹參判 安止等, 進龍飛御天歌十卷…命刊板以行.
- 11) 『세종실록』 권 30, 7년 12월 5일(庚午). 御經筵, 謂知申事郭存中曰, 太祖實錄, 只書一本, 若後日遺失, 則不可. 又寫一本, 納春秋館, 一本吾常見之, 其傳教於春秋館. 知館事卞季良啓曰, 太祖實錄, 多密事, 臣與河崙知之, 他人不知. 不可又寫一本, 而使衆人知之. 請擇吉日, 納于史庫. 從之.
- 12) 『세종실록』 권 78, 19년 7월 29일(丁巳). 咸吉道監司書進穆翼度桓列聖薦居之處及其誕生之地與其子孫族譜, 所居州里名號.
- 13) Peter H. Lee 저·김성언 역, 『용비어천가의 비평적 해석』(태학사, 1998), 49면.
- 14) 『세종실록』 권 110, 27년 11월 3일(甲戌). 上謂都承旨柳義孫, 右副承旨李思哲 司憲

<용비시>가 <용가> 제작 본의를 곡진하게 살리지 못한 바 문신들에게 절구든 장편이든 찬이든 송이든 자신 있는 양식을 택해 풍성한 공덕을 표현해 만세에 전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다. 뒷날 이 발언을 취소했을망정 歌詩만으로는 <용가> 제작의 근본 의도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공고해졌음을 뜻한다. 꼭 1년 뒤 『태조실록』을 간접적이라도 열람하고자 어효첨·양성지 등에게 초록해 반입하라 명한다¹⁵⁾. 필요한 전거를 실록에서 적출하여 <용비시>에 첨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는 바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주해문 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신호로 짐작된다. 1447년(세종 29) 2월에 최항 등이 『용가』10권 5책을 진상하니 주해가 완성을 본,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판본이라 하겠다.

결국 현재 우리가 읽는 『용가』라야 비로소 <용가>의 진의가 전달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역으로 주해문의 중요성을 역설함에 다름 아니다. <용가>만으로는 부분적 혹은 불완전한 의미 파악으로 만족하거나 심하게는 오해나 왜곡될 여지도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주해문의 정독과 분석은 물론 그것을 관류하는 원칙 및 정신의 이해가 <용가> 감상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사안이 이렇듯 심중한데도 학계는 어떻게 임했던가? 『용가』의 연구사를 검토해 본 이라면 누구나 의아함을 느낄 것이다. 15C의 생생한 국어자료라는 점에서, 국어로 표현된 최초의 문학 텍스트라는 점에서, 세종 대의 역사한 면이 개진되었다는 점에서 국어국문학과 사학이 주목했으며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인정한다.¹⁶⁾ 그러나 문학과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어

執義鄭昌孫曰...既讀龍飛詩，歌頌功德。然其體劾詩作四言，頗未盡意，今又欲令文臣或絕句或長篇或讚或頌，隨意撰述，鋪裝功德之盛，以傳萬世，卿等與集賢殿官分製以進。後寢其命，竟不作。

15) 『세종실록』 권 114, 28년 11월 8일(壬申).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 春秋館啓, 實錄, 非史官, 不得見. 又諺文廳淺露, 外人出入無常, 臣等深以謂不可. 上卽名還入內, 令春秋館記注官魚孝瞻, 記事官梁誠之, 抄錄以進.

학 분야에서도 <용가>에만 의존하여 저런 성과를 올렸다고는 호언할 수 없다. 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코 주해를 참조하거나 활용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도 주해문에 대한 독립된 논문 한 편은 물론 논자의 견해나 태도조차 피력하는데 인색한 학계 조류를 어떻게 수궁할지 곤혹스럽다. 다만 2편의 논문에서 극히 적은 지면을 할애해 ‘주해의 성격’¹⁷⁾, ‘배경사화의 기능’¹⁸⁾이란 항목 아래 다룬 점 그나마 위안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선행 연구 결과에 유념하면서 주해문을 디딤돌로 본문에 다가서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주해문의 정밀한 이해가 본문 해명의 열쇠라는 소신으로 작업에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주해문의 종류와 그 특성을 분석해 보고 다음으로 주해문들이 <용가>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의 구명에 진력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용가>의 본질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요 그것에 대한 세종의 구상과 의중이 윤곽이나마 모습을 노정하리라 예견해 본다.

2. 주해문의 종류와 특징

전장에서 보았듯 주해문은 번역시, 사화, 그리고 章次의 해설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난해하다 여겨지는 어구에 붙인 할주를 포괄한다. 이들을 字體의 크기와 상단선에서의 거리 및 글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본주와 할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계의 관행을 존중해

16) 김승우가 학위 논문에서 최근까지 이뤄진 『용비어천가』 관련 연구 결과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 크게 참고가 된다.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변천 양상』, 고대 박사학위논문(2009. 12), 1~5면.

17) 정구복, 앞 논문, 24~7면.

18) 강태호, 「<용비어천가> 구조 분석 고찰」, 아주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2002. 12), 21면.

전자를 사화, 후자를 주석문으로 호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주석문 가운데서도 章次에 첨부한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해당 장이 텍스트 전체에서 부담한 위치를 약술함으로 독립성이 강하다. 분량은 적지만 章次註라 명명하고 항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장에서는 주해문을 사화, 주석문, 장차주로 분류한 뒤 각자의 서술적 특징을 궁구할 것이다.

1) 사화

<용가>의 125장 가시들이 6조의 잠저 시기 사적들을 주된 제재로 채택했음은¹⁹⁾ 『용가』의 수미를 장식하는 <序>·<箋>·<跋> 중 어느 것을 일별하더라도 요연해진다. 그만큼 6조 사적들이 <용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안지가 쓴 <전>의 요긴한 부분만 보면 ‘이에 목조가 기틀을 연 시기부터 태종이 잠저로 있을 때까지 무릇 여러 사적 중 기위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거두어 조선건국에 따른 간난과 함께 부연·진술을 모두 구비했으며 옛날(중국)사적들로 의논하였습니다’와 같다.²⁰⁾ 목조~태종에 이르는 기간

19) 제107·124장은 태종 즉위 후의 치적이 제재이므로 예외적이며 따라서 1445년 4월에 완성을 본 <용가>의 초간본은 그 규모가 123장인데 이 두 장의 첨입으로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125장이 등장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승우, 『세종조 『용비어천가』의 보수의 정황과 실상』, 『어문논집』59(2009) 31면. <용가>가 태조 및 태종의 즉위 이전의 자취를 노래했다는 정인지의 발언은 몇 군데서 괴리를 보인다. 사원 혁파를 칭송한 제107장과 124장은 이미 지적되었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1408년(태종8)에 태조가 서거하자 태종이 관행이었던 易月制를 거부하고 삼년상을 고집했다는 제92장, 제 2차 왕자 난의 핵심 인물 방간을 끝까지 태종과 세종이 비호했다는 제103장, 태조 즉위 후 김계란, 김운을 義士라하며 기용했다는 제108장이 현저한 예들이다.

20) 爰自穆祖肇基之時，逮至太宗潛邸之日，凡諸事跡之奇偉，搜撫無遺，與夫王業之艱難，敷陳悉備，訂諸古事。『용가전』, 7면. 정인지의 <序>에서 상응하는 부분을 적기한 다. 先叙古昔帝王之迹，次述我朝祖宗之事，而太祖太宗，即位以後，深仁善政，則莫

에 현시된 비범한 자취와 이조 건국에 즈음하여 당면한 장애들을 일차 수습·정리하고 다음에 그들과 상응할 수 있는 사적들을 중국 측에서 구하여 서술했다는 보고다. 태조의 4대조와 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기까지 아들 방원과 함께 체험한 행적들이 <용비어천가>의 주 제재임을 토로한다. 그러니까 목조→…태종의 盛德·成功들을 사서든 현장이든 採訪하여 위계를 따라 열거한다는 것이며 이 6인물들의 행적에 필적할 만한 사례들을 중국 측에서 발굴하여 맞대응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쯤에서 <용가>의 구상 단계의 편모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선조들의 성덕성공을 송양하고 지손들이 지수해야 할 규계를 전수하려는 취지로 ① 6조들의 공적들을 적통 순서로 발굴, 배열한다, ② 6조들의 사적과 흡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적을 남긴 인물들을 중국 쪽에서 찾는다, ③ 국문시를 모두에 신되 ②를 前詞에, ①을 次詞에 배분한다, ④ 동일한 순서로 번역시를 신는다, 등이 아마도 1445년(세종 27) 4월에 일차 완결된 <용가> 편술의 규례였을 듯하다.

그러나 ①~④와 같은 歌詩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세종은 이미 보았듯 보완책 마련에 노력한다. 시경시 형식을 답습한 4언체를 절구나 장편 등으로 교체해 보려는 시도, 『태조실록』을 언문청에 존치하여 수시로 참고하겠다는 복안, 태조 관련 사적을 초록해서 올리라는 하명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은 끝에 『용가』가 출현하는데 최항이 그 산과역을 맡았다. 그는 『자치통감훈의』를 편찬하고 『사서오경』에 구결을 단 경력의 소유자다.²¹⁾ 이론과 실무를 겸한, 주해문

罄名言, 只撮潛邸時德行事業. 推本列聖肇基之遠, 指陳實德, 反復詠嘆, 以著王業之艱難. 앞 책 4면. 최항은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언술했다. 歲乙丑議政府右贊成權暉, 右參贊臣鄭麟趾, 工曹參判臣安止等, 製爲歌詩一百二十五章以進. 皆據事撰詞, 撫古擬今, 反復敷陳, 而終之以規戒之義焉. 앞 책 271면.

21) 전인초, 앞 글, 455면.

작성의 일인자리는 평판이 저런 사업의 주관자로 기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6조의 각 인물들에 배당한 사회들이 무엇이었든지 조선 측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위의 ①~④에서 이미 시사했듯 제1~125장의 순차는 6조의 족보가 준거다. 중국의 여러 제왕 치적들은 6조의 공덕을 장식하고 보장하려 선취했으며 따라서 들러리적 성격이 짙다. 그들을 먼저 진술함은 중세 보편주의의 표상이고 6조 사적들의 의의를 입증하는 논거이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해 폭을 확충하는데 그들도 크게 이바지하겠지만 사정상 뒷날로 미룬다.

태조는 건국의 주역이므로 사적이 방대한 것은 자명하다. 그 기록들의 모티브만 추려도 필자의 작업에 따르면 학술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원고량을 초과한다. 불가피하게 위화도 회군 사건을 다른 사회만 주목하되 그것도 <용가>의 제재에 국한하기로 한다. 태종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일부만 보인다. 그러나 4조는 사적이 소량이므로 노래의 제재를 전부 제시하기로 한다. 필자가 발췌, 정리한 내용을 표로 보이면 이렇다.

[표1] 6조의 노래 관련 제재 및 출전

구분 6조	제재	취급 장차	출전 ²²⁾
목조	① 원에 귀속, 韓東 지역에서 5천호 다루하치가 되니 동북인 모두 귀속했다.	제3	태조실록권1, 총서1·2.
	② 전주에 살다가 官妓 때문에 知州事와 사이가 나빠져 삼척으로 이사했는데 북방에 기틀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다.	제17	
	③ 전주에서 사이가 나뉘었던 지주사가 삼척 안렴사로 제수되자 덕원으로 이주했는데 170여 호가 추종했다.	제18	
	④ 목조는 전주→삼척→덕원→韓東으로 이사를 다녔다.	제110	태조실록권1, 총서1·2·9.

22) 사회들이 등재된 전거는 이미 김승우에 의해 조사된 적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것

익조	① 알동에서 여진 추장들의 시기를 받아 적도로 피난 가자 바닷물의 이변이 있었다.	제4	태조실록권1, 총서9.
	② 적도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 유적이 아직도 있다.	제5	
	③ 적도에서 덕원부로 이사했는데 경원 백성들이 시장에 모이 듯 따라 나섰다.	제6	
	④ 여진 추장들이 군사를 청하러 간 사실을 모르는 그에게 물통을 인 노구가 실정을 고했다.	제19	
	⑤ 적도→덕원부로 이사를 갔다.	제110	태조실록권1, 총서1·2·9.
	⑥ 적도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	제111	
도조	① 행영에서 수백 보 떨어진 큰 나무에 앉은 까치 두 마리를 한 살로 떨어뜨렸다	제23	태조실록권1, 총서19.
	② 큰 뱀이 그것을 물어 다른 나무 가지에 얹어 두었다.	제7	
환조	도조의 아들 子興이 승습했으나 단명했다. 손자 天桂가 어린 관계로 천자가 환조더러 계승하게 했다.	제8	태조실록권1, 총서21.
태조	① 평소 태조 군과 소원했던 동북 인민과 여진인들이 회군 소식에 다투듯 모여 주야로 따르니 천 명을 넘었다. 선종황제시 箋을 받들고 간 李孟晦이 李添祥에게 烏夷와 野人 모두 歸來·心腹했음을 자랑했다.	제9	태조실록 권1, 총서82·83·84·85·86·87·89.
	② 우왕 때 君臣은 황음하고 살륙이 날로 심했으며 백성들은 원망으로 탄식했다. 태조 군이 개경에서 최영 군 쪽으로 진격하자 남녀들이 술과 물로 그들을 환영했다.	제10	
	③ 회군의 성공은 용맹이 삼군의 으뜸이요 작위가 兩部에서 최고며 공명이 세상을 덮을 정도였으나 공양왕을 즉위시켰다.	제11	
	④ 위화도에서 지체하는 수일 간 장맛비가 내려도 물이 불지 않더니 돌이킨 군사들이 언덕에 닿자마자 갑자기 큰물이 닥쳐 섬 전체가 수몰했다.	제67	
	⑤ 큰 비로 홍수가 잦으나 위화도가 안전했음은 하늘이 그 물을 돌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제68	
	⑥ 회군 전 동요의 노랫말에 '서경 성 밖에 불빛/ 안주성 밖은 귀신불...'라는 구절이 있었으며 민간에는 '木子가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노래가 있었다.	제69	

을 활용했다. 김승우, 『『용비어천가』 성립과 수용·변용 양상』, 앞 논문, 36-38면.

	⑦ 이첨상이 표전을 받들고 간 이맹균더러 '문무덕의 재간을 세상에 대적할 자 없으니 대장군이요 명나라에 진정한 충신이다'고 태조를 칭찬했다. 설장수가 조알하니 친자가 친하를 차지한 이유를 설명한 뒤 '너희 나라도 이와 같다. 하늘이 부여하지 않으면 인민이 귀래하지 않은 즉 힘으로 갖겠는가'라고 했다.	제70·72	고려사권137 열전50.辛昌 등.
	⑧ 송인문 밖 산대암에 주둔한 태조는 좌우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렸다. 출발에 즈음하여 백 보썸 떨어진 곳에 한 그루 왜송을 한 대의 화살로 자른 듯 넘어뜨렸다. 이길 조짐을 보여 군사들의 마음을 통일시키려는 의도였다.	제89	태조실록 권1, 총서82·83·84·85·86·87·89.
태종	① 嫗族이었던 姜仁富와 李來가 거사를 맡겼으나 방간은 실행했다. 朴苞, 張思吉의 모든 문무 대신들이 태종 편을 들었다.	제99	태조실록권14. 정종실록 권3.
	② 방간의 난이 있기 전 서운관이 '어제 밤 붉은 기운이 서북에 나타났는데 종실 가운데서 맹장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태종을 지목했다.	제101	
	③ 방간이 태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난을 일으키려 했다. 태종이 채비를 차렸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 중지했다.	제102	
	④ 태종이 즉위하자 군신들이 방간을 주살하자고 강력히 권유했으나 듣지 않았고 세종도 그의 친년을 누리게 했다.	제103	
	⑤ 태종은 방간이 패주하자 상해를 입을까 연달아 내 형을 해치지 말라고 외쳤다.	제119	

[표1]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축조적으로 살펴본다.

(1) 6조의 사회들이 시간적 순서를 좇아 제1장→제125장으로 전개되는데는 점이다. 이는 단지 6조의 세대간 승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애 경력 서술에서도 유효하다. 노래 관련 제재는 노래의 주제에 적절한 한지 여부가 채택의 배제적 기준인데 시간의 진행 순차를 우선 고려했다는 점은 심미적 목적보다는 공리적 효용성을 중시했다는 증거다. 史實을 널리, 깊게 주지시키고자 노래라는 방편을 활용했다는 표지가 된다.

(2) 노래와 사회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가령 ‘피한 도즈굴 모르샤 보리라 기다리시니 센 할미를 하늘히 보내시니(靡知黠賊, 欲見以 媿, 皤皤老嫗, 天之使兮)’(제19장)를 검토해 보자. 제시된 歌詩들만으로는 극히 일부의 즉, 제작자들이나 당대 역사에 통달한 인사들을 제외하면 축자적 의미 해독이나 독특한 형식미의-그것도 매우 거칠 정도로-감상으로 자족할 것이다. 피가 많은 도적과 기다리는 행위 주체와는 어떤 관계며 무슨 까닭으로 기다리는지, 머리가 하얀 노파가 한 역할은 무엇인지 독자로서는 오로지 상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문학예술일 경우 상상을 통한 독창적 의미 생산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용가>는 목적성이 강한 악장의 범주에 속한다.²³⁾ 상상에 의존한 자의적 해석이 억제되는 양식이다. 그러기 위해 사회²⁴⁾는 필수적이다. 관련 사회를 독해함으로써 독자들은 익조의 통치력, 인종을 초월한 포용력, 약속을 중히 여기는 의리 정신, 위험에 대처하는 예지, 결단력 등 그의 인간적 면모들을 포착할 수 있다. 위기에서 구출해 준 노파의 등장은 그가 비상한 인물임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익조의 위덕과 비범성을 실증하는 구실을 사회가 감당하고 있다. <용가> 제작의 목적은 사회의 첨가로 한결 뚜렷해진다.

(3) 사회는 집약율, 본문은 분산을 배열의 원칙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채

23) <용가>의 악장적 속성에 대해서는 김성언,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조선 초기 정치사상연구』, 『석당논총』9(1984), 261~4면.

24) 『용가전』, 11면. 제4장의 사회를 골격만 보이면 이렇다. 목조는 여진의 여러 추장들과 정기적으로 성찬의 연회를 교대로 개최하며 교류했다. 선친의 지위와 신분을 세습한 익조도 그 관계를 지속했다. 여진 사회에서 익조의 威德이 높아짐에 비례하여 민심이 경도되었다. 그 추장들은 불안을 느꼈다. 무력으로 그를 제거함이 불안의 해소책이었으나 여의치 못했다. 원군을 청하려면 정례화한 연회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속은 줄도 모르는 익조는 약속한 시점에도 그들이 오지 않자 해판성까지 직접 갔다. 도중에 물동이를 이고 바가지를 든 노파를 만났다. 갈증을 느낀 익조가 물을 청하자 그녀는 가득 떠 주면서 사실을 알려주었다. 황급히 돌아온 그는 식구들을 배에 태워 두만강에 띄우며 적도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택된 사회는 삼화 형식으로 자체가 완결적이다. 삼화의 길이는, 따라서 화소의 종류는 인물에 따라 차이가 심하나 하나의 삼화가 선정된 곳에서는 분량이야 여하하든 시작-중간-종말로 매듭을 짓는다. 앞서 본 제4장의 사회를 예로 든다. 목조가 여진 주장들과 사이좋은 관계였다는 점으로 사회는 시작된다. 저들의 시기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익조가 적도로 옮겨 구차하게 생활함이 중간이다. 그가 덕원부로 복귀함으로써 사회는 종결된다. 익조의 생애가 제4장에서만 서술될 뿐 『용가』 어디서도 재귀하지 않는다. 태조의 위화도 회군, 태종의 정도전 난 진압 등도 각각 제9장, 제99장 사회에서만 거론된다. 사회는 이렇듯 특정한 한 곳에서 초점화가 가능해진다. 반면 본문은 6개의 모티브로 나누어 모티브별로 한 장씩 배분했다. 한 연구에 준하면 <용가> 125장은 제1~16장의 序詞, 제17~109장의 本詞, 제110~125장의 結詞로 3분되며 조선왕조 창업의 당위성 제시, 조선왕조 창업의 당위성 증명, 왕업의 영속을 위한 후대 왕에의 규제라는 각 단락별 주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²⁵⁾ 익조를 기린 6개장을 이 틀에 대입하면 제4~6장, 제19장, 제110~111장으로 묶을 수 있다. 정인지는 <서>에서 ‘다만 잠저일 때의 덕행 사업들을 간추려서 여러 성인들이 아득히 오래전에 기틀을 연 근본을 추구하여 실덕을 진술했으며 반복영탄해서 왕업의 간난을 밝혔습니다’²⁶⁾ 라며 저술의 구도를 언급했다. ‘반복 영탄한다’는 진술 방식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집약과 분산이 사회와 본문 각자의 조직 원리였다고 이를 만하다.

(4) 사회, 정인지의 <서>, 그리고 모티브별 배분을 종합적으로 숙고하면 <용가> 창작의 실무적인 몇 단계들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25) 성기옥, 「<용비어천가>의 서사적 짜임」, 김학성·권두환편, 『고전시가론』(새문사, 1984), 322면.

26) 『용가전』, 4면 只撮潛邸時德行事業, 推本列聖肇基之遠, 指陳實德, 反復詠嘆, 以著王業之艱難.

아무래도 6조의 행적에 소상해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거기에 주력했을 듯하다. 세종이 함길도 등 관찰사들에게 6조에 관한 전언들을 채담해 보고하라는 교지²⁷⁾는 그런 단계의 실천으로 풀이될 수 있다. 문건이든 현장 채록이든 사명을 띤 관료들은 임무에 성실했으리라 본다. 그런데도 ‘4대에 걸친 이성계의 조상 행적을 미화시켜 놓은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다.’²⁸⁾라고 폄훼한 논평은 과도하지 않았나 싶다. 서술자는 ‘기술하되 짓지 않는다(述而不作)’라는 태도를 견지했을 것이요 허구가 있다면 전승자들의 몫이었으리라. 전승자들도 완전히 가공적이요 또 허무맹랑한 창조물을 유포시킨 것이 아니라 있었던 현실을 자기 나름대로 형상화한다는, 역사를 설화화한 결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익조가 살았던 적도의 움집이 <용가> 창작시까지 존속한다는 언표²⁹⁾는 독자들이 4대조의 사적을 대할 때 지닐 태도의 지침이 되어준다.

6조의 사적을 취합한 후 이들을 몇 개의 장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두 번째 단계였으리라 짐작된다. <용가>의 초간초쇄본 판각시에는 123장이었으나 태종의 즉위 후 치적을 취급한 두 장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의 125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각주 19참조)을 수용한다면 저것은 세종의 구상 단계에서는 총 123장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123장이었는가 문제다. 사화들을 고구하면 그 해결의 단초가 잡힐 듯하다.

하나의 사화에 몇 개의 장을 할당하느냐는 전적으로 <용가> 전체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그 사화가 기여하는 정도에 달렸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27) 앞 주 12) 및 1437년(세종 19) 8월 1일(무오)의 기사 등이 해당된다. 傳旨咸吉道監司. 近得所啓, 翼祖誕生宜川南村湧珠社, 從穆祖遷入孔城, 避狄人入留于赤島, 還于宜川, 右赤島連陸乎? 在海中乎? 今爲何州之地乎. 若在海中, 則考其水路相距遠近, 島中險阻平易, 周廻長廣里數, 及卽今人住居與否, 土田膏瘠, 開闢之數. 水路險惡, 則除差人審視, 止訪問以啓.

28) 김성철·김기현 옮김, 『새로 읽는 용비어천가』(들녘, 1987), 441면.

29) <용가> 제6장, 赤島 안헛 움을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러히시니.

태조의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사회에는 8개 장의 모티브를 추출할 수 있었고 태종의 정도전 난과 결부된 사회에는 5개 장의 모티브를 추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조~태종 및 태종비 원경황후의 사회들에서 적출한 모티브 수치대로 노랫말을 제작한 결과가 123장이었다면 이 수치의 유래나 상징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에서 하나 이상의 노래거리를 뽑아 노래한 방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둘 이상의 사회를 종합하여 하나의 모티브를 생성한 경우가 있으므로 123장이 결코 자연발생적인 수치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예컨대 제119장을 보자. 章次 직전에 ‘형제들이 비록 서로 다투는 일은 위에 보인다(兄弟縱相癩事見上)’란 기사가 있고 거기에 ‘위란 제 76장 및 99장이다(上, 第七十六章及九十九章也)’라고 주석을 달아두었다. 그러니까 제119장의 사회는 기왕의 제76장과 제 99장의 그것들을 종합했다는 의미다.³⁰⁾ 이 두 사회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주제를 공유하는데 묶어서 새로운 장을 설정한 셈이다. 제110장과 제114장도 동일한 수법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용가> 제작자들은 사전에 이상적인 수치를 확정해 두고 그것을 충당하고자 위에서처럼 기존의 사회들을 절충해 새로운 장을 산출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예상은 제112~3장의 정보를 통해 탄력을 받게 된다. 앞장에서는 ‘단지 왕사를 위해라는 사실은 위에 보인다(祇爲王事棘事見上)’라고 언명한 아래에 ‘위는 태조가 동서로 정벌할 때를 지칭한다(上, 指太祖東西征討之時也)’라고 풀이해 두었다. 제113장에도 동일한 할주를 첨가했다. 두

30) 제76장은 태조의 서형 元桂가 장자 지위를 탐내 누이 및 노복과 밀모하여 난을 도모하다 실패했으나 태조가 개의치 않고 지극하게 우애를 나누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알려진 사건을 처리함에 태종이 주동인물이면서 형인 방간을 군신들이 집요하고도 완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보호해준 형제애를 기린 것이 제99장의 사회다.

장은 태조가 치른 토벌 전체를 총칭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벌을 수행하면서 갑주를 벗지 못한 날과 식사를 거른 날이 많았다는 그 간난을 강조하는데 기존의 사회들을 총체적으로 개괄해서 별개의 장을 만들고 있다. 중언부언한다는 인상이 농후한데도 굳이 설정한 사연은 한정된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기교로 풀이된다. 이런 경우들을 고려할 때 <용가>는 전체를 123장으로 구성한다는 철칙을 사전에 확정했다고 보겠다.

따라서 도합 123장이 의도적인 수치인 점 인정할 만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123장으로 약정한 연유를 물어야겠다. 주지하듯 <용가>의 제1장은 한 행으로 완결되었다. 제2~124장은 일률적으로 두 행이다. 마지막 제125장은 3행이다. 이렇듯 행의 수가 다른 사연을 소위 三才思想으로 해명한 적이 있다.³¹⁾ 우주는 天道, 地道, 人道로 구성되나 본질적으로는 귀일한다는, 중국 고대 사상의 하나가 삼재사상이라고 한다.³²⁾ 그 1행, 2행, 3행을 횡으로 붙여 쓰면 123이 되고 여기서 총 123장이 연상되지 않았을까 싶다. 정리하면 제1장, 제2~124장, 제125장의 행 수에 삼재사상이 침윤했듯 전체 장 수를 123으로 확정된 데도 삼재사상이 배었다는 것이다. 이리므로 초간본 초쇄 판각 시점까지 <용가>가 123장이었으리라는 가설은 개연성이 높아지는 한편 그 제작자들은 123이란 수치를 聖數로 알고 그 숫자를 채우고자 사회들을 조절했다 할 일이다.

6조에 수반한 사회를 선정하고 <용가>의 전체 장 수를 123으로 결정한 다음 사회에서 시적 모티브를 적출하는 작업이 이어졌으리라 판단된다. 삽화 형식으로 기술된 사회는 다시 화소 곧 사건으로 분절되는데 사건 하나 하나가 전부 <용가>의 모티브로 채택될 수는 없다.³³⁾ <용가> 수찬의 취

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지식산업사, 2005), 276면.

32) 유교사전편찬 위원회편, 『유교대사전』上(박영사, 1990), 624-5면.

33) 태조의 위화도 회군을 취급한 사회를 예로 들어 이 사실을 검증해 보자.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회는 13개의 화소로 세분된다. ① 우왕이 비 씨와 함께 5부 장정들

지와 목적에 합당한 화제를 분별해 내는 작업이 절실하다. 관계 사회는 물론 <용가>의 지향, 그리고 세종의 내면까지 투철한 인물이 섬세하고도 예민한 독해와 관찰, 분석력을 겸비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작업이다. [표1] 이 그 결과의 일부이다.

다음 순서는 추출한 모티브를 ‘반복영탄’하기 위해 서·본·결사든, 開王業·聖人神力·願毋忘部³⁴⁾든 그들을 배분하는 과업이다. 제3~16장에는 건국의 前兆, 제17~109장에는 6조들의 비범성, 제110~125장에는 후왕에의 권계로 3분되는데 이것 역시 <용가> 수찬자들의 몫이었다고 판단된다.

을 군사로 징발하여 해주 백사장으로 사냥을 간다고 소문을 퍼뜨렸으나 사실은 요동을 공략하려는 속셈이었다. ② 우왕이 태조를 소환하여 결심을 밝히자 태조가 4불가론을 들어 반대했지만 무위로 그쳤다. ③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조민수와 태조를 각각 좌우군 도통사로 삼아 부교로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이르렀다. ④ 좌우 도통사가 위화도에서 장마로 물이 불어 진군할 수 없다는 등 몇 이유를 들어 회군할 것을 우왕과 최영에게 건의했으나 묵살되었다. 오히려 환자 金完을 보내 진격할 것을 재촉했다. ⑤ 군중에서 태조가 휘하 군사를 인솔하여 동북 면으로 떠난다는 유언비어가 비등하므로 태조는 조민수에게 회군의 결단을 전한다. ⑥ 압록강을 건너에 몇 종의 이적이 현시했다. ⑦ 성주 온천에 있던 우왕은 대군이 회군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귀경길에 올랐다. 부하들이 급히 추격하자고 요청했으나 태조는 살상이 우려된다며 고의로 지체했다. ⑧ 우왕을 따르던 신료와 인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개경에 도착한 태조 군사는 근교에 주둔하며 최영을 주살하라고 우왕에게 상서했다. ⑨ 승인문 밖 산대암에 진을 옮긴 태조는 미적거리다 都人 남녀와 街童巷婦들의 환대 속에 최영 군과 결전을 벌여 그를 사로잡아 고봉으로 유배시켰다. ⑩ 우왕은 태조를 우시중으로 기용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가 싶더니 야간에 80여명의 관료와 내시들을 동원하여 습격했다. 강화도로 그를 귀양 보냈다. ⑪ 개경에 있던 태종은 두 왕후가 있는 포천으로 달려갔다. 나이 어린 이복동생 및 공주와 두 모후를 부축하여 동북면으로 가고자 함이었다. 온갖 고초를 겪다가 7일만에야 돌아왔다. ⑫ 고려에 내란이 있다는 첩보를 들은 명 조정에서 천자에게 정벌하자는 상소가 있었다. 천자가 종묘에 친히 물어보고자 재계하려는데 고려 사자가 도착했다는 보고에 중지했다. ⑬ 선종황제에게 사은표를 올릴 때 수행했던 이맹균에게 이침상이 태조의 문무 덕은 비견할 인물이 없으며 명의 진정한 충신이라고 칭찬했다.

34) 김선아는 <용가> 125장을 도식처럼 구조화했다.

본고가 예측했던 바 <용가>의 제작을 위한 사화의 채담과 선정, <용가>의 123장이란 장 수 확정, 모티브 적출과 배분이란 일련의 과정들이 사화에 기초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화란 배경지식이 있어야 <용가>는 생동하고, 권위를 지니며, 설득력을 증진할 수 있다. 사화 없는 <용가>는 불구의 악장이었다 진단해도 결코 무리는 아닐 듯하다.

2) 주석문

『용가』에서 주석문의 분량은 압도적이다. 주해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징표다. 그런데 유심히 살피면 이 주석문들은 구실을 기준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몇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1) 문자의 발음과 의미 : 문제가 되는 문자의 음을 반절식으로 표기하고 선 해당 글자와 의미상 통용될 수 있는 비근한 문자로 환치한다. 부연하면 동의어(유의어)로 대체해서 생소한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제2장의 譯詩 제 2·3구 風亦不扞/有灼其華에서 ‘扞’은 오홀절이며 흔들리다의 의미이다(扞,五忽切. 動也)와 같은 형식이다. ‘灼’에 대해서도 ‘직락절로서 화려하면서도 무성한 모습이다. (職略切. 華盛貌)’로 풀이했다. ‘華’의 경우에는 ‘세속에서는 花로 쓴다(俗作花)’라고 하여 친절하게 본래 글자와 속화된 글자를 변별해 주고 있다.

서 사	제1, 2장
본 사	개왕업부..... 제3 ~ 16장
	성인신력부..... 제17 ~ 109장
	원무망부..... 제110 ~ 124장
결 사	제125장

김선아, 『용비어천가 연구-서사시적 구조 분석과 신화적 성격-』, 숙대 학위논문 (1985. 12), 19~51면.

둘 이상의 훈례이 있는 문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도조가 (군영에서 큰 나무 위의 두 마리 까치를) 활로 쏘려고 했다(度祖欲射之)”의 ‘射’자가 적례가 된다.³⁵⁾ ‘射’에는 2종의 음과 뜻이 있어서 (쏠 사, 맞출 석) 오독할 가능성이 높다. 4성으로 구분하고 쓰임의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한자·한문에 입문하는 이들에게나 어울릴 정도로 수준을 낮추었음이 분명하다. 주석 대상의 글자를 어느 범위로 한정했는지는 불명이지만 초학자들은 배려했음은 확연하다. 유식자라도 오독할 여지가 많거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글자에는 주석에 군색하지 않았으니 ‘將’이 바로 그 적례다. 『용가』에서는 무려 115회가 등장한다고 한다.³⁶⁾ 주석 대상 글자의 수준을 낮춘다는 원칙의 표본이 된다.

(2) 자구 해설 :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든 어휘에는 중심 의미와 파생의미들이 있음은 보편적이다. 한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낱자가 지닌 다수의 의미들 가운데서 문맥에 적절한 것을 가리는 작업은 작자건 독자건 신중을 요한다. 널리 통용되는 문자라도 놓이는 위치에 따라 독자들은 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가> 주해자들은 의미의 이런 변전성을 숙지하고 있었던 듯 문제가 있다고 예단되는 자구들에 대해서는 지루감이 들 정도로 설명을 붙였다. 제1장의 ① 海東³⁷⁾ ② 六龍³⁸⁾ ③ 天福³⁹⁾이란 한자어들을 참고할 수 있다.

35) 『용가전』, 8면. 射 食亦切. 不同. 泛而言射則爲去聲, 若射者正己, 射之有志之類是也. 以射其物而言則爲入聲. 若射準射宿之類是也.

36) 송기중, 앞 글, 108면.

37) (海, 晦也, 取其荒遠冥昧之稱. 四海之外, 皆復有海. 東海之別有渤海, 故東海共稱渤海, 又通謂之滄海. 我國在渤海之東, 故云海東也. 『용가전』, 8면.

38) 易曰時乘六龍以御天, 又曰飛龍在天, 利見大人. 龍之爲物, 靈變不測, 故以象聖人進退也. 我朝自穆祖至太宗, 凡六聖, 故借用六龍之語也. 같은 곳.

39) 天福 謂天之福祿也. 左傳曰, 商頌有之曰, 不僭不濫/不改怠皇/命于下國/ 封建厥福. 此湯所以獲天福也. 같은 곳.

①에서는 海의 어원, 15C 사람들의 우주관, 발해란 명칭의 내력, 조선을 해동이라 작명한 배경을 간명하게 해설했다. ‘해동’이란 국명의 유래를 몇 개의 문장으로 깊이 있게 주지시키려는 노력이 완연하다. 목조~태종의 6조를 6용이라 부른 사연을 ②가 들려준다. 6용에 관한 정보의 최고 문헌은 『역경』이란 사실과 거기서 6용이 어떻게 설명되고 또 상징성이 무엇인가도 인용했다. 용=대인=성인=6조라는 등가의 성립을 전제로 6용이 풀이되고 있다. ③은 ‘천복’의 사전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시경』에서 용례를 찾고 상나라 건국주 탕왕과 결부시켰다. <용가>가 『시경』 頌 갈래와 유비되면서 태조의 조선건국이 탕왕의 공적과 비교됨을 행간에 물었다. 주해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 풀이로 만족하지 않고 주해자들의 저의도 용해되었음이 노정된다.

(3) 사물 : 생소하다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사물을 접했을 때 사전을 뒤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전이 희귀했던 시기나 사회에서는 박식가나 호사자를 찾기 마련인데 누구에게나 적의한 환경일 수는 없다. <용가> 주해자들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었는지 독자들이 의문을 갖겠다 예견되는 사물이면 주석에 열정을 바쳤다. 사례로 ‘符’⁴⁰⁾를 본다. 부절의 재료, 제조 및 사용 방법, 관용적 표현 등을 차례로 서술하며 독자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제3장의 사회에 ‘삼과 콩이 아름답다(麻菽美)’라는 문장이 있다.⁴¹⁾ 그 ‘麻’에 관해 ‘곡식 이름이다. 씨는 먹을 수 있고 껍질은 삼아서 베가 된다(麻, 穀名. 子, 可食. 皮, 可績爲布者也)’로 해설했다. 당시가 농경사회였던 점을 감안하면 삼을 모르는 사람 있었을까 라고 의아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상일을 경험하지 못한 부류들이 분명 존

40) 符方無切. 符之爲言, 扶也. 兩相扶合而不差也. 孟子曰, 舜文王, 相距千有餘歲, 若合符節也. 註, 符節以玉爲之, 篆刻文字以中分之, 彼此各藏其反, 有故則左右相合以爲信也. 若合符節, 言其同也. 같은 곳.

41) 같은 곳.

재했을 것이요 그들에게 이런 주석은 요긴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조가 여진 추장들을 만나러 가던 중 물통을 머리에 이고 바가지를 손에 든 노파와 상면하는 대목에서 출현하는 ‘嫗’을 ‘成遇切이다, 늙은 여인이다(老母也)’라 설명한다거나 ‘桶’을 ‘吐孔切이다, 나무그릇이다(木器也)’로 해설함은 번거롭다 여겨질 정도다. 입문기의 학동들을 대상으로 주석했으리라는 심증을 굳게 한다.

(4) 고유명사 : 고유명사라지만 인명, 지명, 종족명, 국명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극히 일부의 집히는 것만 거론해 보기로 하자. 周의 선조 棄는 모친 姜原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낳았다. 부계가 수상적으므로 태어나서는 不祥하다 하여 유기되었다. 이름 ‘기’는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⁴²⁾ 꿩줄의 신성함과 함께 신화적 사유의 소산임이 한눈에 들어온다. 陶唐에 대해서는 ‘陶는 徒刀切이다. 당이란 요가 천하를 소유했을 때의 이름이다. 요는 처음 당지방의 제후였는데 뒷날 천자가 되어 당에 도읍하였으므로 도당이라 한다.⁴³⁾’라고 역시 작명의 근거를 밝혀 두었다. 작명의 배경을 밝히는 예는 태공망 여상에게서도 발견된다. 그의 본래 성은 강씨였으나 뭍 땅에 봉해졌으므로 여상이라고 했다 한다.⁴⁴⁾ 건국주의 내력 풀이는 진시황이 단연 압권이다. 呂不韋가 온갖 술수를 써서 자신의 혈통 政을 시황으로 등극시키는 과정이나 자신이 文信侯로 성장해서 국권을 농락하는 경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물됨이 귀감이든 반면교사이든 탄생의 비밀을 비롯하여 과거를 조명하는 점이 서술의 특징이라 이를 만하다.⁴⁵⁾ 중국인들의 소개는 『사기』를 저본으로 삼은 듯하며 작명 배경을 조명하는 관행도 여기서

42) 棄母有郃氏女曰姜原. 姜原爲帝嚳元妃, 出野見巨人跡心欣然說而踐之. 踐之而身重如孕者, 居期而生子. 以爲不祥棄之隘巷, 初欲棄之, 因名曰棄. 같은 곳.

43) 徒刀切. 唐者, 堯有天下之號也. 堯初爲唐候, 後爲天子都唐. 故曰陶唐也. 앞 책, 9면.

44) 앞 책, 16면.

45) 앞 책, 37면.

비롯하지 않았을까 한다. 대체적으로 중국 인물에 대한 소개는 정성이 보인다.

한국 인물의 경우 거론되는 인원은 많으나 중국인들처럼 과거를 폭로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 중에서도 辛旽은 각별하다.⁴⁶⁾ 생애는 극적 반전의 연속이었다. 인물의 국적은 불문하고 논의되는 인물들의 탄생 비밀이나 반전을 거둬주는 일생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공통요소라 할 만하다.

<용가>에 사용된 지명은 주석문 작성 당시의 호칭이다. 작성에 임하면서 결정한 원칙이었음을 언명했다.⁴⁷⁾ 특정지역에서의 관찰 대상은 관심만큼 다양할 수 있다. <용가> 제작진들의 시각은 그러면 무엇이였을까? 노래에 처음 등장하는 慶興 관련 주석문⁴⁸⁾을 분석하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흥이란 호칭의 변천과 연혁의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부터 소급 가능한 시기까지 문제가 되는 지역의 이름과 내력을 되짚는 일이 주해의 사명임을 주해자들은 인식했다고 하겠다. 조선이 수도로 정한 한양은 유별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앞의 경흥과 대비하면 대치는 없다. 한강의 북쪽이라는 입지 조건 때문에 한양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들어 한강을 부조시킨 면이 다르다면 다르다. 여기에는 加斤洞(가근동), 達川(달내), 蛇浦(·브암개), 孔巖(구무바·회), 烏鳥城(오·도·갓) 등 고유 명칭들을 한자와 정음(방점을 찍어)으로 병기한 특징을 보인다.⁴⁹⁾ <용가>가 정음의 최초작품이요 또 관찰사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현상은 다각도로 음미되어야 할 일이다. 이 연구의 입장에서 지적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명의 표기에서도 결코 과거를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자로 전환시킨 명칭만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될 여러 부작용들 염두에 둔 처리라고 평가할 수

46) 앞 책, 35~6면.

47) 앞 책, 8면. 據今所稱而書, 後凡書諸道及州府郡縣之名亦多類此.

48) 위 같은 곳.

49) 앞 책, 64면.

있다. 다층적인 행정구역의 명칭과 유래도 이런 모습이다.

역사상 부침했던 국가들의 국명을 설명하면서도 회고의 관점은 한결같이 유지된다. ‘백제’란 국호 명명의 풀이가 전형적인 예다.⁵⁰⁾ 북부여에 남았던 주몽의 태자 유리가 부친을 찾아왔는데 그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해코지할까 두려워 두 이복동생이 남으로 도주함에 백성들이 추종했으므로 ‘백제’라는 국호를 정했다면 충분했을 터인데도 형제들이 통합을 이루고 위례성을 수도로 정한 경위를 비록 신화적 요소가 개입했을망정 박진감 넘치게 서술했다. 유래 진술이 곁들여져야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어준다는 <용가> 제작자들의 독자 심리관도 작용했겠지만 어떤 현상이나 제도이든 역사적으로 파악해야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들의 역사관에 치중한 서술이라 보면 무난할 듯하다.

4) 제도: 왕조가 판도를 원활히 통치하고자 제정한 각종 기구나 조직들을 일괄적으로 제도라 할 때 『용가』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그것들은 많지만 임의적으로 관제와 전제 두 가지만 대상으로 한정한다. 중국 쪽의 관제를 보면 최고 통치자 집단⁵¹⁾과 신료군⁵²⁾으로 나뉘고 후자에 대해서는 관서별 품관들의 官階와 구성원 수를 밝혔다. 대체로 설명이 간략한데다 등장인물들은 당대 것의 소개로 그친다. 하나의 기관이 수많은 왕조에 걸친 변천사를 설명하는 작업은 번다하기만 할 뿐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에 반해 한국 쪽 것⁵³⁾은 상대적으로 상세하다. 고려 왕조부터 시발한

50) 앞 책, 79면. 百濟, 其地東至地異山, 西南至大海, 北至漢江. 高麗東明王朱蒙, 自北夫餘逃難, 至卒本夫餘. 夫餘王無子, 見朱蒙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及朱蒙在北夫餘所生長子類利, 來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51) 次天子之貴者諸侯也. 諸侯有五等, 公·侯·伯·子·男也. 不言諸公者嫌涉天子之公也. 稱諸侯, 猶言諸國之君也. 앞 책 15면.

52) 예컨대 ‘序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다. 大明官制, 鴻臚寺, 卿, 秩, 正四品, 左右小卿, 從五品, 左右寺承, 從六品, 主簿廳主簿, 從八品, 司儀司賓署 署承, 正九品, 鳴謙序班, 從九品. 앞 책, 33면.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밝히지 않았다. 고려 이후로 <용가>가 제작된 시점까지 하나의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 조직, 조직원의 관계와 수 등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상세히 정리했다. 역사의식에 감염된 글쓰기라 하겠다.

여말 전제개혁의 성공이 조선 건국의 원동력이었음은 상식적이다. 공양왕 때 태조가 조준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누적된 사전 악폐를 개혁한 사실을 칭송하는 대목에 붙인 주석문⁵⁴⁾을 보면 고려 문종 때의 전제에서 시작하여 <용가> 제작의 직전에 단행한 개정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공양왕 때의 개혁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전제가 왕조의 운명을 좌우함으로 지배층의 전제에 관한 관심이 부단했으며 또 그만큼 민생에 주의를 경주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전제 제도의 역사적 경과에 『용가』찬자들이 용의주도했다는 암시가 된다.

이상 문자의 음과 뜻에서 출발하여 몇몇 사항들을 두고 주해문의 성격과 주해자들의 태도를 개술했다. 논의된 것은 滄海一粟格이다. 설정한 항목도 그렇고 각 항목에 대한 논술도 그렇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리, 인물, 제도, 경역, 열국, 전제, 복식, 민속, 역사, 의장, 종족, 동식물 등 인간사의 모든 영역들이 두루 망라되었으며 가히 15C 중반 동아시아의 백과사전이라 일러도 결코 망발일 수는 없을 듯하다. 도서관 시설이나 백과사전 같은 문헌이 미비했던 시절, 그렇다고 인적 자원이 충분하여 의심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없는 처지에서 독자, 특히 학적 경험이 일천한 입문기 학동들에게까지 의아심을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주해문은 작성되었으리라

53) '문하시중'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이면 이렇다. 高麗文宗定官制。中書門下省尙書省，門下侍中，尙書令，各一人，秩從一品.....忠烈王 元年併中書門下省，尙書省議府，改侍中爲中贊，參知政事爲參理。十九年，增贊成一，贊成參贊，皆稱左右。 앞 책 23~4면.

54) 앞 책, 211면.

본다. 아울러 어느 분야건 가능한 한 사적 전개 양상을 위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을 듯하다.

3) 章次註

<용가>의 총 125개 장 중 9개에는 할주를 부기했다. 제1·2·10·59·60·61·68·79·110장이 그들이다. 이들 중 제10~79장은 ‘이 장은(또) 앞 장을 이어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읊었다’⁵⁵⁾ 라는 동일 문장을 첨부했다. 그러니까 제10장은 제9장의 주지와 흡사함을 알려 혼란을 예방한다는 안내다. 만일 이런 논급이 없었다면 독자들은 여러 갈래로 상상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용가>의 근본 취지와 상치되는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절 사화가 없는 장들과 진배없는 혼란이 일 것이다.

제59~61장은 제58장의 주제를 3장이 연속적으로 이어받았다는 의미다. 각 장의 後詞와 관련된 사화만을 살펴본다. 沈德符, 洪徵, 安桂 등 고려 장수들은 150척의 배를 타고 함주, 홍원, 북청 등지를 유린하는 왜적들과 싸우다 대패했다. 이에 태조는 자원 참전하여 적들이 선점한 兎兒洞(투싯골)에 진을 치고 좌우에 장졸들을 매복시켰다. 자신은 백여 기를 인솔하여 적들이 주둔했던 곳에 올라 胡床에 앉고 군사더러 안장을 벗겨 휴식을 취하게 했다. 제58장은 이런 내용은 노래했다.⁵⁶⁾ 제59장은 같은 전투에서 왜적들이 토모동의 동서 간을 선점하여 진을 쳤는데 멀리서 울리는 태조 진영의 나팔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는 내용이다.⁵⁷⁾ 제 60장은 태조가 토모동 적의 진세를 훤히 알면서도 그 골짜기를 유유히 통과했지만 적들이 그의 전략을 몰라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동서군이 합했다는 내용이

55) 此章, (亦)承上章而反復歌詠之也 앞 책, 35면.

56) 내 니거이다 가사 山미퇴 軍馬두시고 온 사롬 드리샤 기르말 밧기시니. 앞 책, 186면.

57) 東海옛 도즈기 智勇을 니기 아사바 一聲白螺를 듣좁고 놀라니. 앞 책, 194면.

다.⁵⁸⁾ 적들은 통솔자가 태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위축되었다. 휘하 李豆蘭, 高呂, 趙英珪더러 적을 유인하게 하자 선봉 수백 기가 응전했다. 태조는 고의로 후미에서 패주하는 척하며 이미 매복시켜둔 아군 속으로 숨었다가 돌연히 반격해 그들을 사살했다. 이러기를 4차례 반복하니 죽어간 적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웠다는 게 제61장의 대의다.⁵⁹⁾

종합적으로 제58~61장은 150척의 배에 분산해서 들어온 왜적들이 토모동에 주둔했을 때 태조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저들을 농락하고 사살했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행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장소는 동일한데 상황이 다름으로써 장을 달리한 경우다. 모티브별로 태조의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을 반복 가영했다는 점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10~79장은 사화가 선행장과 동일하되 모티브별로 새로운 장을 꾸린 사실을 할주로 독자들에게 보고하여 그들의 독해 방향을 통일시켰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반해 제1·2·110장은 작품전체의 구조에 대한 주해문 제작진들의 발언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제1장에는 ‘이 장에서는 우리 조선 왕업의 진흥이 모두 천명의 보우에 말미암았음을 총괄적으로 서술했다. 노래를 짓게 된 소이를 우선적으로 말했다라고 협주했다.⁶⁰⁾ 역성혁명이 권력의 찬탈이나 정치적 야욕의 현실화가 아니라 천명 곧 민심의 선택이요 趨向임을 밝히고자 <용가>를 지었다는 논조다. <용가>가 가영할 세계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의 표지 아래에는 ‘이 장은 사물에 가탁한 비유로 왕업의 누적이 심원함을 읊었다’라는 주석을 붙였다.⁶¹⁾ 목조-태종에 걸친 6조가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업들이 왕업으로 귀결했음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2장은 제3장 이하 109장까지를 총

58) 變化 | 無窮 ㅎ실쌌 도즈기 스실 디나샤 도즈기 뜰몰라 모드니. 같은 곳.

59) 일후를 저싼바늘 ㅎ브사 뒤헤나사 手斃舞筭 ㅎ샤 百艘賊 자브시니. 같은 곳.

60) 此章, 總敘我朝王業之興 皆由天命之佑, 先述其所以作歌之意也. 앞 책, 8면.

61) 此章, 托物爲喻以詠王業積累之深遠也. 같은 곳.

괄하는 대강이 된다. 한편 제110장에는 ‘이 장 이하는 반복적으로 가영해서 규계의 뜻을 전한다’⁶²⁾라는 설명을 부가했다. 선조들의 공업과 거기에 부수되는 고난을 재언함으로써 사고와 행위의 이정표로 명심하라는 권유다.

이 세 장들의 할주를 근거로 우리는 <용가> 제작진들이 구상했던 텍스트의 구조를 추론할 수 있을 듯하다. 그들은 <용가> 전체를 제1장, 제2~109장, 제110~125장으로 분할했으리라는 것이다.⁶³⁾ <용가>의 구조를 두고 선학들 중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고 다른 결과에 이른 경우도 있다.⁶⁴⁾ 전자가 이런 장차주를 논거로 혹은 참고하여 귀납한 결론인지는 본고가 논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3곳의 주해가 작품 구조 이해에 기여한 면은 결코 망각할 수 없을 성 싶다.

3. 주해문의 역할

1) 『용비어천가』 진술의 사전적 이해

운문과 산문을 가릴 것 없이 사용된 어휘의 사전적 해독이 텍스트 이해의 첫걸음이고 우선임은 공리다.⁶⁵⁾ 어휘의 소리나 모양 등 의미 생성에 관여하는 자질들은 다양하고 다층적이지만 그들의 구실이 결코 해당 어휘의 의미가 갖는 비중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 어휘가 갖는 중심적 의미의 해독

62) 此章以下, 皆反復覆歌詠, 以致規戒之意焉, 앞 책, 266면

63) 담화 구조 분석 용어를 원용하여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아질 듯하다.

<용비어천가>	{	서사: 제1장
		본사: 제2 ~ 109장
		결사: 제110 ~ 125장

64) 개괄적인 검토는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변전 양상』 참조, 앞 글, 3~4면.

65) 김준오, 『시론』(삼지원, 2004), 81면.

이 가능해야 파생적 의미는 물론 유의어, 반의어 등도 환기될 것이요 어원적 의미까지로도 진전할 것이다. 함축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중심적 의미를 동심원의 중핵으로 삼고 퍼져나가는 환유적 확산일 뿐이다.

<용가> 주해자들도 유사한 논리를 소유했던 듯하다. 본문에 해당하는 국문시와 그 역시에 독자들이, 그것도 초학자에게까지 수준을 낮추어 의아심을 발동하겠다 여겨지면 어김없이 주해했다. 문제적인 어휘의 의미는 물론이요 발음까지도 제시했다. 주해의 대상도 확장하여 일상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제도와 문물, 자연계와 인문계를 막론하고 시적 진술에 오른 것이라며 외면하지 않았다. 공자는 시의 공효의 하나로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⁶⁶⁾라고 설교했지만 주해자들은 그것을 넘어 그들의 생리나 역사까지도 가르치고자 했던 듯하다.

<용가> 제1장의 주해문만 점검하더라도 주해자들의 이런 의식이나 태도는 분명히 탐지된다. 7개의 어절 중 5개(海東, 六龍, 느르다, 天福, 同符)를 대상에 올렸다. 독자에 따라서는 생소하기는커녕 진부하거나 친숙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또 『천자문』 해독자라면 축자적 의미는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한자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해자들은 다랍지 않는 자세로 설명, 소개했다. ‘육룡이 느르샤처럼 문장 층위의 것도 ‘이따금 육룡을 타고 하늘을 난다(時乘六龍以御天)’라는 『역경』의 일절을 인용했음을 밝혔다. ‘동부’의 경우는 어휘의 의미를 인식시키고자 ‘符節’이란 관련 사물까지 설명의 범위를 확장해 어휘는 물론 일반상식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독자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강렬했다고 보아도 괜찮을 듯하다.

이러한 주해의 태도는 제125장까지 일관한다.⁶⁷⁾ 제2·13장처럼 주석이

66) 『논어』<陽貨>.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邇之事文,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67) 제 125장의 제3행에도 다음과 같은 협주를 부가했다. 左傳曰, 成王于郊廓, 卜世三

전연 없는 장도 있는가 하면 앞 행에만, 혹은 뒤 행에만 있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예의 경향은 제2장이 범례가 되어주듯 국어를 알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조직되었거나 혹은 기왕에 한 번 주석을 가했음으로 생략한 데 따른 조치이지 목과한 일은 없었다고 해석하면 무난할 일이다. 똑같은 사정은 역시에도 통용된다. 국문시를 번역했으므로 동일한 문자나 어구가 양쪽이 같이 구사할 개연성은 높다. 당연히 국문시에서 이미 주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역시의 주해 양이 적을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주해 양이 적다하여 주해 태도가 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시든 역시든 주해의 질적 차이는 없었다는 게 본고의 관견이다.

사회에도 주해를 첨부한 점은 의외다. 본질적으로 사회는 주해의 일종이다. 그것은 歌詩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데 소임이 있다. 그것을 주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환대요 역으로 가시의 위상을 저락시키는 처사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주해 분량이 어림잡아도 주해 전체의 98%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字體의 크기나 시작 위치의 고하로 둘을 차별한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말이다.

무차별적인 주해 작업은 조선을 창건한 시점을 하한선으로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그리고 깊이 홍보하지만에 본질적으로는 <용가>, 나아가 『용가』의 저술 의도 내지 목적을 두었다 추론하게 한다. 가시 이상으로 사회의 주해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논거다. 그것은 사회를 근간으로 가시를 이해시키려 한다는 세종 및 그의 명령을 받는 주해진들의 설계였을 수도 있다. 사회의 투철한 이해가 가시의 완전한 음미로 이끈다는 판단에서 사회와 그 주해에 열정을 쏟았다는 것이다.

가시든 사회든 주해자들이 오늘날의 백과사전을 편수한다는 심정과 자

十, 卜年七百. 註蓋定縣之時, 卜當傳世三十君載祀七百年. 國人謂獵爲山行. 『용가전』, 270면.

세로 작업에 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문장 내지 문학 행위나 현상의 얹어 어휘의 기본 의미가 바탕인 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주해자들은 심력을 경주했다 할 것이다.

2) 시적 진술의 맥락화 補整

가정으로 시작하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을 소유한 이에게 아래의 장을 제시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드르헤 龍이 싸호아 四七將이 일우려니 오라 혼들 오시리이가
城밖고 브리 비취여 十八子 | 救호시려니 가라 혼들 가시리잇가 <제 69장>

물론 국어국문학에 대한 그의 취미와 소양, 그의 가정환경과 국어교사의 영향 정도 등 작용하는 변인이 많으므로 반응의 편차가 생기기라는 점은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장래 상위권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할 학자가 꿈이었으나 여의치 못한 집안 사정으로 진학을 유예한 학생으로 한정하자. 틀림없이 그는 전사가 중국 고사요 후사가 그에 대응되는 한국의 그것이라는 점, 두 행 모두 3개의 화제(① 들에 용이 싸우고, 성 밖에 불이 비친다. ② 47장수가 이루려 하고, 一八子が 구하려 한다. ③ 오라 하지만 오겠는가, 가라한들 가겠는가)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명쾌하게 대답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장의 사화나 세주를 읽지 않았다면 머리를 흔들 것이다. 도대체 ①은 어떤 상황인가? ②의 행위 주체는 누구이며 그가 성취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③의 명령지는 누구인가? ④ ①-②-③으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등등 이 텍스트의 이해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물음들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할 듯하다. 작품 자체만으로는 겨우 자구의 사전적 해독

에 머물거나 교사의 설명을 기억하여 기본적인 몇 가지 사실로 응대할 뿐 그 이상의 진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그만 이렇겠는가? 모르긴 하나 한국문학을 전공한 학자라도 고전시가, 특히 <용가>에 유난히 애착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면 그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 추측된다. 정음시와 동시에 제작되었다고 추단되는 譯詩⁶⁸⁾를 참조하라 제시하여도 발전된 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리라. 예의 그나 학자나 주어진 텍스트를 소화하려면 작품 외적 자료나 정보가 요긴하다는데 공감할 것이다. 아니면 작품이 졸렬하다거나, 미완이라거나, 난해하다는 인상뿐이라고 우길지도 모른다.

산문이 도보라면 운문은 무도라는 정의가 있듯 운문은 생략, 비약, 굴절, 변용, 상징 등을 체질로 삼는다. 이런 문학적 수법이나 장치들은 섬세하고도 미묘한 찰나의 정감을 구체적으로 영구화시키려는 방편이다. <용가>라고 다를 바 없다. 아니 더욱더 지능화, 고도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건국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설득하고 왕조의 영속성을 희원하는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한 제16장이 치졸하거나 난해한 텍스트라는 인상은 바로 생략과 비약에 기인한다. 이른바 ‘의미의 빈 공간’⁶⁹⁾을 활성화했다는 것이다. 시의 접근에 꼭 필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이 작품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독자들에게는 순차적 과제가 남게 된다. 첫째는 기왕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의미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요 둘째는 메운 내용들이 과연 정확한가 대조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를 자발적으로 읽든 혹은 의무적으로 읽든 빈 공간을 채워가는 독자들은 부지불식간에 텍스트의 배경이 된 사회에 익숙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바로 텍

68) 부대한 역시는 다음과 같다. 龍鬪野中/四七將濟/縱日來思/噓肯來詣//火照城外/十八子救/縱命往近/噓肯往就.

69) 강태호, 앞 글, 21면.

스트의 제작 목적이나 의도를 그들에게 세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16장에 침입된 사회를 통해 ①, ②, ③이 어떻게 집맥되는지 지면상 우리 것만 개괄해 보기로 한다. 이성계(1335~1408, 자는 仲潔, 호는 松軒)가 회군하여 압록강을 건너기 얼마 전 ‘서경 성 밖엔 불빛이요/ 안주 성 밖은 연기/ 그 사이를 오가는 이 원수/ 백성을 살려 달라 부탁하고 싶네’⁷⁰⁾라는 동요가 유행했다. 회군 이전부터 송헌이 무장임에도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해 줄 인물이라는 세평이 형성되었다는 소식이다. 참요적 성격이 강한 동요를 통해 민중의 여망을 엮은 송헌이 대두한다는 조짐을 세상에 유포한 셈이다. ②의 ‘十八子’는 ‘李’의 파자다. 『참서』에 ‘十八자가 삼한을 바꾼다’라는 학설이 있다고 했다.⁷¹⁾ ②의 출처를 밝혀 허구적 진술이 아님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제69장의 배경사회는 제9장에서 이미 제시된 것과 참언이란 공통요소를 고리로 묶여 歌詩의 모티브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제9장에서 적출한 참언적 화소와 제69장에서 새로 설정한 사회를 결합시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①과 ②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어 ‘救恤시려니’는 ①·②어디에서도 감지하기 어려웠는데 둘이 융합되면서 파생했다고 볼 수 있다. ③은 명령하는 이와 명령을 수행할 이가 매우 모호하다. 아마도 명나라 서반 이첨상이 사은전을 받들고 간 이맹균에게 ‘남의 부림을 받아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에 이르렀다가 곧 돌아가니 진정 조정의 충신이다’⁷²⁾라는 언질과 연관시켜 우왕이 성헌에게 ‘요동성을 치러 가라한들 가겠습니까?(백성을 구하려고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로 해석하면 상호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다. 이첨상의 발언을 <용가> 제작진들이 생략하고 변용시켜 저렇게 표현했다고 보겠다.

70) 西京城外火色/安州城外火因光/往來其門李元師/願言救濟黔蒼. 『용가전』, 28면.

71) 앞 책, 204면.

72) 都摠制李孟昉, 陪箋入朝, 序班李添祥謂孟昉曰.....老王卽其人也....爲人所使. 將兵來到鴨綠江上, 便回去, 眞朝廷忠臣也. 앞 책, 33~4면.

사회가 문맥 생성에 절대적임을 제69장을 통해 확인했다. 물론 이 장이 125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제2장과 같은 특수한 예를 제외한다면 <용가>의 이해에 사회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는 타당성을 얻으리라 본다. <용가>에서 시행의 의미는 사회로써 생동하고 음미의 대상으로 비로소 좌정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시행의 맥락을 닿게 함과 동시에 정리해주는 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사회는 한 행 안에서만 보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과 장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로 맡는다. 많은 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용가>의 서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각 장 단위의 독립성을 꼽는다.⁷³⁾ 개별 장들이 시간 혹은 인과 관계로 연쇄하지 않고 자족적으로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찰은 국문시나 여기에 역시를 보충하여 읽는 한 옳다. 국문시 자체만을 분리시켜 읽는다면 ‘발화를 억제하는’ 서정의 본령에 직립한다.⁷⁴⁾ 형식(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내리는 진단이다.

그러나 시행 자체에 원용된 ‘의미의 빈 공간’ 논리를 시행 간에도 적용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장과 장 사이에 큰 간극을 주면 독자들은 파편적으로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호 연결시키려 들 것이다. 그들은 추리나 기억의 인지 활동을 가동시켜 연결고리를 찾으려 고심할 터이요, 그래서 획득한 결과와 사회의 대비는 장들 간의 유착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장들만으로는, 즉 외형으로는 제27~89장이 태조의 사적이라는 점 표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들 간에 사회를 개재시키면 그것은 계기적인 행적의 칭송이란 점이 명확해진다. 전체 속에서, 혹은 한 인물의 일생에서 각 장이 무엇

73) 김학성이 ‘선학의 연구에 의해 널리 입증된 바와 같이……각 장을 단위로 서술의 독자성 혹은 강한 독립성을 보인다는 점이다’라고 하여 저간에 사정을 일러준다. 김학성, 『동아시아의 시학으로 본 <용비어천가>의 시적 특성』, 『한국시가연구』8, 한국시가학회, 2000, 148-7면.

74) 김학성 앞 글, 147면.

을 말했으며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는 오로지 주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⁷⁵⁾ 결과적으로 주해는 한 장 뿐만 아니라 장들 간의 맥락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할 일이다.

3)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태조·태종 치적 선양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부과된 일의 처리가 공정했던가 등을 자문할 때 봉건시대 선조들은 역사 속에서 답을 구했다. 역사는 포폄의 사례집이요 시비곡직의 판단 기준이었다. 그것 속에서 문제의 해결 전략은 물론 추진력도 얻었다. 그것은 또 자신감과 자긍심의 대부이기도 했다. 후대는 역사에서 전범이 되는 역할 모델을 찾았으며 반추의 거울로 삼기도 했다. 사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鑑戒의 보고였다.

조선 창업의 합당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적례로 주해문 제작자들은 周의 건국과정을 주목했다. 제3~9장을 정독하면 개략적이거나 재구할 수 있다. 조선의 건국 자취 역시 맞대응시킨 사회들로 파악할 수 있다. 면밀히 살펴보면 둘의 건국과정에는 유사성이 상당함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다. 선조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가업을 발전 번창시키지 못하고 야만족들 사이로 방랑한 점, 이주하는 곳마다 威德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는 점, 자연의 이변이나 이인이 등장해 난관을 돌파해 간다는 점,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추대하나 본인의 사양이 결국하다는 점, 어느 세대에서는 적장자 아닌 방계가 들어 가통을 계승한다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면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무왕이 B.C.1110년에 紂를 토벌했다니⁷⁶⁾ 조선 건국과는 대략 2500여년의 시차가 난다. 농경시대라서 정치를 비롯한 많은 분야의 변화가 완만한

75) 조동일, 앞 책, 277면 참조.

76) 부낙성저, 신승하역, 『中國通史』(우중사, 1982), 47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듯 둘의 건국 과정이 흡사하다는 점은 놀랍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으리라. 중세가 복고 지향적이면서도 보편문화를 추구했기에 역사시대를 연 왕조로 알려진 周의 문물제도가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요 따라서 건국 주체들은 누구든 자국의 건국 과정을 주의 그것과 대비시켜 상사성을 적출하거나 아니면 산출하려 부심할 것이라는 점을 그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환언하면 주의 건국과정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인사들이 유적, 구전, 문서 등으로 6조의 사료들을 손닿는 한 수합한 후 武王 선대들의 행적과 부합되는 것들만 간추리거나 필요하다면 조작 혹은 윤색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쪽의 건국 과정을 정합시키고자 『용가』 제작진, 나아가 당대 사관들의 공조와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논리다. 이런 점에서 정인지가 <서>에서 ‘실제적인 덕행을 따서 진술했다(指陳實德)’거나 안지가 <발>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가사를 지었다(據事撰詞)’라는 언명들은 다소 공소하게 들린다.

이처럼 후인들이 의심하거나 비난하리라는 점을 저들도 예상했을 터이런만 간과해 버린 데는 그런 폄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명제가 계산되지 않았을까 한다. 건국의 당위성,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는 것이다. 무왕이 주를 정벌한 사건은 엄연히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반역인데도 맹자는 혁명으로 이미 규정했다. 그것은 만민의 소원이요 제후들의 승낙이기에 준엄한 하늘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선 건국 과정을 주의 그것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저의가 여기서 자명해진다.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거나 고려에 미련을 둔 신민들을 설득하고 전향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호제가 아닐 수 없다. 6조 관련 사화는 조선 건국 사실을 논리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홍보하고 세뇌시키는 구실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송헌의 일곱 아들 중 방원이 조선 창업에 공로가 가장 크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방과 역시 기여한 면이 있으나 그에 비하면 미미하다. 비록 창업에 조력한 실적은 적더라도 그도 용(임금)이었다. 선대 임금들의

사적을 칭송한다는 <용가>의 취지로 재단하면 그도 응당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누락되었다. 그 요인을 두 가지로 짚을 수 있다. 하나는 세종이 직계 선조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요, 나머지는 셋째였던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준 태종의 은혜를 갚고자 세종이 그를 위해 <용가>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어느 진단이 정확한지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세종의 의중에 태종을 양각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태종의 생애를 냉정하게 조감할 때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공존한다. 송현의 회군과 최영의 관군사이에 전투가 예상되자 그는 한걸음에 포천으로 달려가 두 모친 및 이복동생들을 고초를 무릅쓰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다. 태자를 영접하러 해주에 간 태조가 사냥하다 낙마하여 요양이 불가피해졌다. 정몽주 등이 이를 호기로 여겨 정도전, 남은 등 송현의 참모들을 일망타진하러 들자 방원이 선제공격하여 숙청함과 동시에 왕조의 길을 텃다. 신생국의 권력을 장악한 원공 훈신들이 재상 정치를 꿈꾸며 세자로 어린 방석을 책봉하는데 앞섰다. 무장해제 상태에 이른 방원이 이른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방과가 옥좌를 물려받도록 했다. 방원의 권세가 막강해짐을 우려한 방간이 또 난을 일으키자 무력으로 제압하니 제2차 왕자의 난이다. 방원은 조선 건국에는 공로가 거대하다. 하지만 두 차례나 골육상쟁을 일으켰다는 면에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중국 쪽 사회에서는 조선의 태종과 대칭될 만한 인물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니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도 모른다. 대신 당 고조(李淵)의 둘째 태종(世民. 첫째는 建成, 셋째는 元吉)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제 26·33·41·58장이 대표적임) 그때마다 송현과 짝을 지었다. 가령 제33장⁷⁷⁾을 보자. 세민이 16세의 소년임에도 무공이 대단했음을 찬미한 사회

77) 해당 사회를 간추리면 이렇다. 楊帝가 北塞를 순행함에 돌궐이 공습했다. 雁門으로

다. 이 사회를 송헌이 흥건적의 난에 혁혁한 전과를 올려 개경을 수복한 사실을 양각시키는데 사용했다. 부조화스럽다는 인상이 앞서는데 양쪽의 시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민의 즉위 과정은 제26장을 보면 기이하게도 이방원과 닮은 점이 적잖게 연상된다. 당 고조는 세민의 謀策에 힘입어 진양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벌이는 전투마다 그의 지략으로 승리했다. 세민의 성예가 상승함을 시기한 건성은 동생 원길을 끌어들여 그를 모해했다. 고조의 많은 비빈들과 그 소생들도 건성에 동조했다. 형세를 간과한 고조는 세민을 洛陽에 보내어 자식들 간의 우애를 회복시키려 했으나 건성이 결사반대했다. 세민이 거기서 사병을 강성하게 육성하리라는 예단 때문이었다. 건성 및 원길과 후궁들 사이에 醜穢한 소문이 무성하다는 세민의 보고를 받은 고조는 그들을 제거하고 그를 태자로 책봉했다. 그가 형제 및 비빈들의 모함과 투기에 시달렸다는 점은 방원의 제1·2차 왕자 난을 환기시키기에 족하다.⁷⁸⁾ 한데도 엉뚱하게 공민왕이 어사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조를 삭방도의 병마사로 제수했고 그것이 태조 즉위의 전조가 되었다는 내용과 결부시켰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도했을까?

피신했는데 주위 41성 중 39은 이미 함락된 상태였다. 적의 화살이 어전에 떨어질 정도로 안문마저 위태로웠다. 양제가 천하에 격문을 보내니 屯衛將軍 雲定興이 지원했고 16세의 이세민도 그 휘하로 참전했다. 군세를 과장해서 놀라게 하는 전술에 적은 퇴각했는데 그의 방략이었다.

78) 申概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동조자를 보게 된다. 『세종실록』 권82, 20년 9월 25일(丙午). 受常參, 視事, 初, 贊成申概上言, 竊惟歲在戊寅, 權奸乘太祖違豫, 欲謀挾幼專國, …臣伏觀獻陵碑文, 其戊寅之事曰, 太宗炳幾殲除. 臣竊謂此語不泯其實跡, 大戾太宗之心. 夫幾者, 動之微也. 先於事未形著而行之, 謂之炳幾. 或有敢行不根無萌之事而巧飾之, 亦曰炳幾. 我太宗心之光明正大, 如青天白日, 斯言也, 無乃啓後世之疑乎. 無亦使天日之心不明, 而在天之靈有所不憚乎? 且此舉也, 與唐太宗丙戌之變, 事同而情異. 建成 兄也. 唐太宗有推刃之慘, 芳碩孽弟也, 而國人誅之. 唐太宗夙有兵備, 不俟彼變而先發之. 我太宗素無兵備, 而有彼之變, 然後乃應之. 以此觀之, 其含隱忍之誠心, 不獲已之實跡, 遠過於唐宗矣.(하략)

태종이 2차례 골육상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성리학적 지배 이념으로는 치명적인 흠결이다. 그런데도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권력자의 특권과 술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유약한 왕권을 반석에 앉히려는 선의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진정한 왕도와는 거리가 멀다. 세종은 그런 강상의 죄를 벗기는 한편 자신의 즉위에 대한 유자들의 고까운 시선도 쇠신시켜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 대책이 바로 諡號의 동일성을 통해 태종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교정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또 방원의 업적이 송헌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내리도록 의도적으로 당 태종을 자주 인용했으리라 가정할 수도 있다. 사서 기록은 改修가 지난하므로 당 태종의 사적을 끌어와 조선의 태조와 병치시키되 우회적으로 조선 태종에 대한 이미지의 고양을 꾀했다는 것이다. 조선 태종의 왕위 승계가 하늘의 뜻이며 따라서 민심의 기대라는 점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입증하고 싶었던 세종의 본심의 표백으로 읽힌다.⁷⁹⁾

周 대의 정치사회나 문물제도는 이후 왕조나 제후국들의 귀감이 된다. 과거로 소급할수록 인심이 순후하고 따라서 이상정치가 펼쳐졌다는 漢文化의 복고 의식이 근거다. 그 주나라의 건국과정을 조선의 그것과 합치시킴은 건국 명분의 상동성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이면으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받쳐주는 기반이 된다. 당 나라 태종은 이른바 ‘貞觀의 治’를 성취했다. 중국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문물을 융성하게 진흥시켰다. 그러나 그 번성은 형제가 피를 흘린 대가였다. 형식적으로는 태조를 그와 병렬했지만 시호가 일치하므로써 조선 태종을 연상하게 한다. 세종이 이 점에 착안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주의 건국

79) <용가>의 저술이 ‘이방원의 권력 획득 과정을 합리화하는데 있다’라고 주장한 최상천 외의 시각은 이런 논리에 무게를 실어준다. 최상천·이윤석·박승길·여찬영·최웅혁, 『용비어천가 찬술의 역사사회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7, 호대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1, 64면.

내력과 당 태종의 활약상에 관련된 사회의 채택은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조선의 건국, 태종의 승계를 고양하려는 저의로 풀이된다.

4) 사적 사실의 홍보와 내면화 촉진

민중들의 이반과 선택에 의지한 역성역명은 정당성을 확보한다. 仁義를 저버린 桀紂는 제왕이 아닌 一(獨)夫였으며 그들을 제거한 湯·武王은 弑君者 아닌 聖君이었다.⁸⁰⁾ 주지하듯 송헌은 공민왕 이후 빈발했던 외침에서 활약하여 두각을 나타냈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전형적인 무장 출신이다. 정도전, 조준과 같은 개혁지향의 신흥사대부와 결탁, 내부 투쟁을 거쳐 선양형식으로 고려조를 종언시켰지 고난에 찬 하층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잔학한 지배층과 투쟁해서 승리해 세운 왕조는 아니었다.⁸¹⁾ 때문에 조선의 건국은 정당성을 의심받았고 그만큼 왕권은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태종과 세종은 이른바 적통 아닌 閏統이었다.⁸²⁾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 비추보면 비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 언제든지 신하들에게 꼬투리 잡힐 여지가 큰 약점이었다. 왕조의 영속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방호벽을 쌓아야 할 현안이었다.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선양하고 왕조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세종은 <용가>를 기획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문제라면 건국신화라든가 영웅시 혹은 영사시 같은 문학 유산들을 답습할 수도 있었겠지만⁸³⁾ 그는 외면

80) 『孟子』, <梁惠王章句>下.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臣弑君可乎. 曰,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不聞弑君也.

81) 최연식·이승규, 『용비어천가와 조선건국의 정당화-신화와 역사의 긴장-』, 『동양정치사상』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251면.

82)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문예 미학』(민속원, 2005), 197면.

했다. 신화적 사고나 행위를 신뢰할 정도의 지적 수준에서 사회는 이미 탈피했으며 자국의 언어만이 민족의 사상이나 정감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의 언어관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합리적인 수단이나 제재라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의 소신이 <용가>의 구상단계에서부터 개입했다 할 일이다.

송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고려 왕조를 멸망시켰다는 세인들의 비난과 원성을 잠재우고자 세종은 역사와 천명설을 이용했다. 6대조들이 생전에 벌인 사업들이 때론 천부의 재능과 기량으로, 때론 기적과 이변으로 소담스런 성과를 거두어 민심을 모으거나, 걸출한 외모와 비범한 품성 때문에 백성들이 귀속했음을 기왕의 기록으로 설득하지는 취지가 <용가>를 관류한다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용가>의 창작 사업이란 중복적일 수도 있다. 조선 건국이 천명에 순응한 결과라는 신념으로 건국 전후의 역사를 『태조실록』 권1 <총서>부분에서 정밀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의 <총서>부분이 과연 『태조실록』초간본(1413년 태종 13)의 것과 일치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6조 사적들이 미흡하다는 상념에서 세종이 여러 경로로 채록과 수집에 부심했고 그 결과가 이미 완결을 지은 실록의 내용과 피리가 크다면 그로서는 목과할 수 없는 형국이요 또 획득한 결과들을 잘 다듬어 보급하고 전파시킨다면 역성혁명과 태종의 세습에 대한 세간의 斜視를 수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⁸⁴⁾ 이렇게 되면 사서의 미비성을 보완하고자 <용가> 제작을 기획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태조실록』 초간본

83)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이승휴의 <제왕운기>, 권람의 <應製詩注>가 사례가 된다.

84) 『태조실록』은 1413년(태종 13) 3월에 15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실상과 다르다는 세종의 판단과 새로운 사료의 수집으로 1448년(세종 30) 6월에 증보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증보판이다. 그렇다면 『용가』의 사화가 『태조실록』 <총서> 부분과 유사함은 동일한 사초를 사용한 데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의 <총서> 부분이 목하 전해지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면 <용가> 제작의 동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인즉 그것은 바로 사서의 밀폐성이라고 추단할 만도 하다. 만일 『태조실록』의 열람이 자재로왔다면, 아니 적어도 중국 쪽 사서만큼이나마 제약이 적었다면 『용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줄여 말하면 <용가>는 예의 <총서> 부분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각인시키려는 의도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이다.⁸⁵⁾ 어느 쪽으로 기울든 <총서> 부분의 대중화와 친숙화가 <용가> 제작의 근본 동기라는 점 확실해진다.

제시형식 면으로 볼 때 <용가>는 일차로 가창을 염두에 두었다.⁸⁶⁾ 125장 전체를 성악화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여민락>은 5장(제1~4·125장), <치하평下>은 17장(제1~16·125장), <취풍형>은 9장(제1~8·125장)만 사용하되 전체 장을 통섭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고 한다.⁸⁷⁾ 문학이 발휘하는 기능은 여럿인데 설득력도 그 중 하나다.⁸⁸⁾ 6조 각 인물들의 행적을 서술한 삽화들 중 천명성을 상징할 수 있거나 비범성을 표상할 수 있는 모티브만 골라 시화함으로써 설득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노래가 기억을 증진시킴은 우리의 경험칙이다. 가락을 탄 언어의 지시내용은 가락과 함께 자동적으로 연상된다. 혁명의 합리성과 왕조의 수성을 설득하고 인식시킴에 <용가>는 이상적인 방편이었다.

하지만 <용가>는 또 한계도 분명했다. 『태조실록』의 <총서>에 달통한 인물이거나 사관처럼 필요한 때면 하시라도 읽을 수 있는 인사들에게는 이

85) 정두희, 『조선건국사자료로서의 <용비어천가>』, 『진단학보』, 진단학회, 1968, 91면.

86) 『세종실록』권 116, 세종 29년6월 4일(乙丑). 初上以龍飛御天歌, 被管絃, 調其慢急, 作致和平, 醉豐享, 與民樂.

87) 양태순, 『<용비어천가>의 짜임과 율격』, 『고전시가의 종합적 고찰』(민속원, 03), 385~8면.

88) 문학의 설득적 기능에 대해서는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pp.35~6.

상적이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그런 인물이 소수라는데 있다. 기껏 <용가>의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이거나 특정 직임의 경력자 및 현임자 정도에 불과했다. 지존의 현왕이라도 왕실과 관련된 秘事가 많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단적으로 사서는 금서였다. 이런 형국은 <용가>의 제작 동기나 취지와 불화한다. 되도록 향유층을 넓히자는 게 처음의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어긋나고 말았다.

세종이 <용비시>의 결함을 투시하고 유의손 등에게 절구, 장편 등의 대안을 모색해 보라고 일렀던 게 1445년(세종 27) 11월,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 10권 5책의 『용가』가 헌정된다. 사회로부터 장차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해 작업이 이 동안에 완성된 셈인데 제작진의 노고도 노고겠지만 세종의 독려도 가열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의 건국사를 초학자들도 노래로 각인시키겠다는, 세종이 <용가>를 구상하면서 품었던 뜻은 『용가』의 완결로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하겠다.

세종의 『용가』 저작 의도는 1447년 10월에 『용비어천가』 550본을 신하들에게 하사했다는 면으로는 짐작이 간다. 저 숫자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京外 관료 전체 수는 미상이지만 사족 출신들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한다. 거기다 모름지기 그들의 자제들까지 합산해야 할 것이요 그 여파는 종속된 노비에게도 미칠 것이다. 『용가』는 그들 모두를 독자로 확보하게 된다. 사회를 비롯한 주해문은 송헌의 조선건국이 정당하며 순리라는 점을 널리 그리고 깊이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할 것이다. <서>에서 정인지가 사람들이 단지 가시적인 현상에 열광할 뿐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이치를 모른다고 한탄한 점⁸⁹⁾이나 주해자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만물의 사적 내력 구명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 <용가>

89) 人徒見夫宗廟宮室之懿美也, 州郡民物之富盛也, 禮樂刑政之文明也, 仁恩教化之洋溢也, 不知積累也深長也, 所以建不拔之基. 『용가전』, 3면.

제작의 본령이 조선 건국 으뜸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그리고 깊이 각인시키지는 데 있었음을.

4. 결론

이 연구가 도출했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축조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1) 주해문은 사회, 주석, 장차주로 구분된다.

2) 사회는 6조 사적들을 연대순으로 취합하고 중국 역사에서 그것과 호응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장식했다. 사회별 혹은 둘 이상의 사회를 합쳐 미리 확정된 123장에 충당하고자 모티브를 적출했다. 서동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수준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했다. 장차주를 통해 세종을 비롯한 제작진이 구상했던 <용비어천가> 체재를 알 수 있다.

3) 주해문은 가시 및 사회의 사전적 의미를 제공하고 각 장들 내부뿐만 아니라 장들 간의 화제들에 맥락을 구축한다. 그것은 또 이성계의 역성혁명과 이방원의 세습을 미화하여 조선건국과 관련된 사실들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대제각 영인, 『龍飛御天歌全』, 1973.

이운석, 『완역용비어천가』上·中·下, 효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2~4.

『세종실록』 권 30, 49, 78, 82, 108, 110, 114, 116.

유교사전편찬 위원회 편, 『유교대사전』上, 박영사, 1990.

2. 단행본

김성철·김기현 옮김, 『새로 읽는 용비어천가』, 들녘, 1987, 441면.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4, 81면.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문예 미학』, 민속원, 2005, 197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276면.

부낙성저, 신승하역, 『中國通史』, 우중사, 1982, 47면.

Peter H. Lee 저·김성연 역, 『용비어천가의 비평적 해석』, 태학사, 1998, 49면.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pp.35~6.

3. 논문

강신향, 『용비어천가의 편찬 경위에 대하여』, 『문리학보』6-1, 서울대 문리대, 1958, 147~152면.

강태호, 『<용비어천가> 구조 분석 고찰』, 아주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02.12, 21면.

김선아, 『용비어천가 연구-서사시적 구조 분석과 신화적 성격-』, 숙대 학위논문, 1985.12, 19~51면.

김성연,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조선 초기 정치사상연구』, 『석당논총』9, 1984, 259~74면.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변천 양상』,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9.12.

김승우, 『세종조 『용비어천가』의 보수의 정황과 실상』, 『어문논집』59, 2009, 5~41면.

김학성, 『동아시아의 시학으로 본 <용비어천가>의 시적 특성』, 『한국시가연구』8, 한국시가학회, 2000, 135~157면.

성기옥, 『<용비어천가>의 서사적 짜임』, 김학성·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313~334면.

- 송기중,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북방민족어명』, 『진단학보』69, 진단학회, 1990, 103~24면.
- 양태순, 『<용비어천가>의 짜임과 율격』, 『고전시가의 종합적 고찰』, 민속원, 2003, 374~395면.
- 전인초, 『최항과『용비어천가』』, 『어문연구』32-4, 어문연구회, 2004 겨울, 449~73면.
- 정구복,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역사의식』, 『한국사학사학보』1, 2000, 15~42면.
- 정두희, 『조선건국사자료로서의 <용비어천가>』, 『진단학보』, 진단학회, 1968, 79~94면.
- 조홍욱, 『용비어천가의 창작 경위에 대한 연구』, 『어문학논집』20,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1.2, 143~162면.
- 최상천 · 이윤석 · 박승길 · 여찬영 · 최웅혁, 『용비어천가 찬술의 역사사회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7, 현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1, 57~84면.
- 최연식 · 이승규, 『용비어천가와 조선건국의 정당화-신화와 역사의 긴장-』, 『동양정치사상』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249~69면.

Abstract

A Study on the Annotative Sentence in the <Yongbiochenga>

Jung, Moo-Ryong

The results which one judges to secure from this study are item by item summarized as followings :

1) The annotating sentences are divided into tale of history, explanatory note, and annotation of order number.

2) The tales of history are collected from traces of 6 ancestors by writers of annotative-sentences and for the purpose of adorning 6 ancestors they pick out from the chinese history those which call to each other. In order to supply for 125 items before confirmed they extract motive from respective tale of history or those combined more than two takes of history. They low the standard of annotation and expend the range of annotation for the reader who don't understand the <Yongbiochenga>. One can know the format of<Yongbiochenga> which Sejong and the writers of it map out from the annotation of order number.

3) The annotative sentences supply dictionary's meaning to the verses and tales of history as well as construct interrelation between topics in therespective tale of history. Also beautifying the Lee Sung ge's revolution of changing surname and Lee Bang one's heritage they play the role of inscribing the facts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Chosun in the reader of <Yongbiochenga>

Key-words : Annotation, Tales of history, Encyclopedia, Format, Interrelation, stability, Inscription

정무룡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609-825)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315-3(3/3)

전화번호 : 051-663-4218, 010-3672-0284

전자우편 : mrj@ks.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